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재구조화 추진 '논란'

시, 공영주차장 폐쇄·광장 개방 시민에 쾌적한 도로 제공 목적 '불법영업' 포차 양성화 부적절 "세금낸 인근 상인들 억울" 반발

광주시가 수역원의 시비를 투입해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들어선 교통광장 일대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지만, 혈세를 들여 '불법' 포장마차 거리를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중

심)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 구동 2-2번지 일대 '교통광장 재구조화 사업(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은 '광주공원 포차거리'로 유명한 곳으로 광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 '오매광주'에서 광주의 추천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3억5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재구조화 사업은 연말까지 광주공원 앞 노상 공영주차장 49면을 폐쇄하고, 광주공원과 향교, 회경루 등 역사·문화 자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집결지로 사용됐던 역사성을 고려해 더 이상 주차장으로 방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가운데 보행자 중심의 문화·먹거

리 광장을 만들기 위한 가칭 '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공원 포장마차거리는 1970년대 시작돼 50여년 넘도록 광주시민과 함께한 장소이지만, 단 한번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수십년간 사실상 불법영업이 지속돼 온 것이다.

불법 포장마차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시 관할인 광주공원과 남구의 구유지인 공영주차장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해 관리·감독의 주체가 모호했고, 이에 따라 원활한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단속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일제 단속 등이 이뤄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20년 광주시가 영업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타 노점상과의 형평성과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재구조화 사업 추진도 과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계획 발표 전후로 포차거리 상인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 포차거리 상인 대부분이 반대했고, 일부 상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 등록조차 할 수 없다며 당장의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장마차 상인들과 달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온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치솟고 있다.

한 상인은 "정상적인 허가절차 없이 불법 운영되는 포차거리가 광주의 '랜드마크'라는 이유로 시의 지원을 받으며 양성

화 되는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이라며 "포차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닌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시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정을 한다면 누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겠냐"라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구조화 사업의 주목적이 '포장마차 거리 활성화'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교통광장 일대 재구조화를 통해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고 광장을 찾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포차거리 활성화가 주된 목적은 아니다"면서 "도로점용료 징수 등은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병하·윤준명 기자

광주 올해 첫 눈 관측... 내일까지 비·눈 이어져

무등산 적설량 3.9cm 기록 일교차 커 체감온도 낮아

광주·전남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린 가운데 당분간 강풍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 올해 겨울 첫눈이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11월17일)보다 10일 늦고 평년(11월 29일)에 비해서는 2일 빠른 눈 소식이다. 전남 산간 지역에도 눈이 내렸으나 공식 관측지점인 목포나 여수 등에서는 눈이 관측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최심적설량(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으로 보면 광주 무등산 3.9cm, 광양 백운산은 3.3cm, 곡성 옥과 0.4cm 등을 기록했다.

구례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성삼재와 피아골에 시범 운영 중인 관측 기계에 3.6cm가량의 눈이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

첫눈 이후에도 광주·전남에는 29일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mm 수준으로 전남 동부내륙에는 1~5mm의 눈이 내리겠다. 29일은 광주·전남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전남동부내륙에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가 되겠고,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외출 시 두꺼운 외투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지역에 첫눈이 내린 27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하얀 눈으로 만들어진 눈꽃 터널을 바라보며 등반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밸런스 라인